



대한심장학회 회장
최경훈 (연세원주의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 심장학회 회원 여러분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나라에 꽃이 피던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바람, 뒷마루에 둘러 앉아 수박이라도 함께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각자 너무 바쁜 탓에 그런 기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뉴스레터로 인사를 올립니다. 뉴스레터 1호부터 4호까지는 학술대회가 주를 이루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5호에는 강정채 선생

님에 이어 심원홍 교수님의 '야전군에 야전을 즐깁니다'를 비롯하여, 3월에 있었던 임원 워크샵의 보고, 홍그루 선생님의 해외학회 방문기, 국내외 학회 소개, 심평원의 허혈성 심질환 포괄평가계획에 대한 심장학회 대응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성껏 채워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뉴스레터에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난제로 의료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지만 이러한 어려

움 속에서도 우리 심장인들은 움츠러들기 보다는 좀 더 의연한 자세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뉴스레터도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 뉴스레터가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넘어서 심장학회의 국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소식지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그 때까지 회원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회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오동주 (고려의대)

어떻게 지내세요, 야전군은 야전을 즐깁니다.



심원홍 (세종병원)

일전에 송재관 선생이 전화로 원고를 부탁하기에, '정년 퇴임하여, 지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야전군'이라는 취지에서 써달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송교수한테는 진 빛이 있던 터라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수락하게 되었는데, 전화 끝에 멘트가 '선생님은 영원한 야전군'이라는군요. 2011년 8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고 좀 여유있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다행히도 퇴임한 사람도 쓰겠다고 몇 군데서 제안이 왔어요. 내가 늙어서 봉사할 곳이 어디가 좋을까 찾던 중, 그 동안 해 온 일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세종병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자에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봉사하는 자세로 진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었네요. 옛 어른들 말씀대로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병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한 심혈관 전문병원으로, 환자의 종류와 Pool이 참 크고 다양합니다. 아마 송교수가 언급한 '영원한 야전군 사령관'이라는 이야기도 이와 상관이 있을 듯합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아무도 손을 안댄 Fresh Case로 시간을 다투는 환자

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Primary PCI'는 늘상 있는 Daily Practice입니다. 너무나 잘 해서 내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오거나 자문을 구하는 예는 주로 'Acute Aorta Syndrome'으로, 대동맥이 터져서 막 진행 되거나, Thrombus로 대동맥이 막히거나, 여러 중요 기관에 피가 안 가서 조직이 죽는 등 시급을 다투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야전군이 필요하고, 일전을 불사하여 하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한 야전군인가 봅니다. 한편 힘이 들지만 결과가 Dramatic해서 지휘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지요. 나 자신은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거칠고 야생적인 야전군이라... 남이 보는 이미지가 더 객관성이 있는 법인데, 그 동안 자기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꾸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대학 출신 과장들과 협력하여 일을 할 때 또 다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환자가 좋아지면 우리는 모두가 Winner이고, 나빠지면 우리는 모두가 Loser라는 생각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하고 놀라기도 하죠. 정년이 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후배나 동료들에게 이런 것을 한 번 권해 봅니다. 주중에 최소한 하루를 공백으로 비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비워 놓으면 생활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주중과 주말에 따라 계획을 세워 여유를 즐기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내 경우 주중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오후에 골프 등의 운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가족이나, 몇몇 친구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 여행을 즐깁니다. 이렇게 하니 일주일 내내 활력이 넘치고, 건강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 자체를 즐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나이 값은 해야 한다고들 했는데, 그 내용인 즉 남한테 양보해 주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점점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는데, 고집만 늘면 누가 좋아할까요? 같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서로의 과실에 연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봉사의 기회로 알고,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팀에 도움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자 새끼는 야생에서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야전군은 일선에서 일을 즐기는 생활을 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참 행복한 야전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New Horizon for Globalization of Korean Cardiology"

www.ksc2013.or.kr

KSC 2013

The 57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29(Fri.)-30(Sat.) November, 2013 KINTEX, Goyang, Republic of Korea

임원워크샵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미래로'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금), 일산 MVL 호텔에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미래로" 라는 주제로 대한심장학회 임원워크샵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회이사 26명과 각 연구회 및 지회의 임원 17명, 총 4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한심장학회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소통의 시간" 을 주제로한 임원워크샵 1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는 9개의 연구회와 5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각 연구회 및 지회의 현황을 서로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회와 연구회, 지회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기회를 만들고자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2부에서는 "대한심장학회의 미래를 위한 대 토론회" 를 벌였습니다. 우선 회원 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칙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방과 포용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 수의 증가는 필요하지만, 학회 회원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학회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으로 양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심장학회가 좀 더 나은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선생님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발전을 위해서 회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술대회의 국제

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국제화 시대에 대한심장학회가 국제학회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장장 네 시간 동안 진행된 임원워크샵은 대한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샵을 마치고 참석자 전원은 일산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6년간 대한심장학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여러 제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유수한 역사를 간직한 건장한 학회로서 반듯하게 걸어왔습니다. 워크샵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뉴스레터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 대한심장학회 워크샵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워크샵 일정	
시간(PM)	프로그램
02:30-03:00	등록
03:00-04:40	대한심장학회-소통의 시간 1. 회장님, 이사장님 인사말씀 2. 연구회 및 지회 현황 소개(각각5분 이내) 3. 연구회 및 지회 발전을 위한 토론
04:40-05:00	Coffee Break
05:00-07:00	대한심장학회의 미래를 위한 대 토론회 1. 회원수 증진 방안-회칙개정 2. 학술대회의국제화방안 3. 추계학술대회 장소 소개(KINTEX) 4. 기타

심평원 "허혈성심장질환 포괄적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급성심근경색증(AMI) 및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평가

지난 5년간 진행되었던 AMI평가 가감지급사업과 향후 진행 될 2013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간(PCI 평가 신설)에 관한 업무가 학회 회원들의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심평원 적정성 평가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심평원이 시행한 수술 전 항생제, 고난이도 수술(PCI, CABG)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급여청구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심평원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뤄졌으나, AMI 평가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조사표에 평가지표 수집을 위한 자료 입력이 강요되었으며, 의료기관 줄 세우기 평가를 통하여 가감지급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AMI 사망률 감소를 비롯한 의료의 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심평원 스스로 평가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상대평가를 향후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명세서서서 사용하는 기관평가(기존 PCI, CABG, 신설 협심증, 허혈성심질환)는 "진료량 지표" "30일내 사망률" "건당 진료비" "건당 입원일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평원에서 주도하는 평가이므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전문가학회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나, 조사표 입력방식의 평가는 진료현장의 업무과중에 따른 수고비용(Incentive)이나 결과 성과물의 공유(지적 재산권)가 전제되지 않으면 학회에 대한 책

임추궁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불합리한 결과 분석과 이에 따른 의료현장의 왜곡된 대응을 유발하는 부작용에 대하여서도 학회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이후 심평원 급여평가실(평가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허혈성 심질환 평가체계 구축 연구는 기존의 평가기전을 이용한 적극적 질 향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3월 "허혈성심질환 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2012년 10월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중 PCI 지표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7개의 평가관 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 활동을 위하여 PCI guideline 권장사항의 일부(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사용)가 지표로 채택되었으나, 기관 평가를 위한 심평원 자체의 내부적 기준에 근거한 지표(PCI 건수, 건당 진료비, 건당 입원일수)까지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진행된 "허혈성심질환평가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평가에 의한 진료현장의 왜곡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모니터링 지표만으로 시범사업을 하여 baseline data를 만들고 이를 기준 값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이 학회 추천 전문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조사표 작성에 의한 진료현장의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청되었으나 공개된 "2013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간"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3년4월 8일 심평원 급여평가실(평가3부)와 심장학회 및 심혈관중재시술연구회의 간담회에서 지난 5년 AMI 평가의 문제점(평가기준 및 목표점에 대한 설

정이 없음)이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 평가안에서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사표 작성의 workload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점을 들어 학회에서 수용 불가함을 천명하였으나, 심평원의 대응은 4월 23일 "중양평가심사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및 학회와 공동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2월 및 5월에 발송된 심장학회 및 심혈관중재학회 공문(대한심장학회 제 110호, 044호,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 2013-A36호)에 대하여는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심평원 주도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간" 관련하여 7월17일 2차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평가기획위원, 상급심사위원, 급여평가실장, 평가 3부장과 심장학회 및 심혈관중재시술학회 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연간 7만 건 이상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는 노력에 대한 연구비(Incentive) 지급을 요청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결과 분석에 대한 학회의 주도적 참여 및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학회 공문으로 이미 심평원에 전달한 바 있으나 2차 간담회에서도 그에 대한 심평원 측의 성실한 답변이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2차 간담회에서도 그에 대한 심평원 측의 성실한 답변이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에게 아래의 2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공지하고자 합니다. 1.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자료 입력하는 행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2. 학회에서는 공문에 제시된 전제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조사표 입력 등의 공동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심평원이 기획한 사항에 학회와 요양기관이 대안 없이 끌려 들어가서 전문가적 지식을 제공하고 평가 인력까지 공급하였으나, 결과는 일부 질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 본래의 목적에 무관한 심평원의 의료기관 줄 세우기 작업에 들러리를 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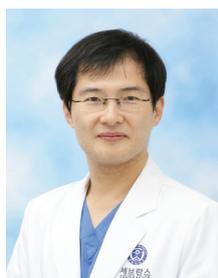
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건 선진국의 경우 이를 위한 지표는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병원 서비스 인증평가, 학회의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수가 이하의 열악한 의료계 현실에 의료인과의 의료기관 자체의 질 개선을 위한 인력비용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Incentive 지급(Pay for participation)이 절실하며, 비용 대비 효과와 같은 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이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 의료현장을 왜곡하거나 의료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문 학회 및 임상전문의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심평원 2013 허혈성심질환 포괄 평가안					
구분	주 부상병전체			주상병	
	AMI	PCI	CABG	IHD	Angina
기관수	181기관	148기관	79기관	320기관	307기관
건수	17,262건	53,917건	3,020건	148,882건	45,689건

AMI, PCI, CABG 통합 조사표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자료원	기존	변경	공통 평가항목별	
				공통	평가항목별
허혈성심질환	청구명세서	-	-	-	-
급성심근경색증	조사표	66문항	42문항	-	29문항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조사표	-	22문항	13문항	9문항
관상동맥우회술	조사표	52문항	58문항	-	45문항
협심증	청구명세서	-	-	-	-

ASE 2013을 다녀와서



홍고루 (연세대의)

미국심초음파학회(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ASE)의 제 24회 Annual Scientific Session은 2013년 6월 29일 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최대의 도시, 미네아폴리스에서 "Disease Based Focus on the Role of Echo in Diagnosis and Guiding

Therapy"라는 표제 하에 개최되었다. 이제껏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학회를 참가하였지만, 미네아폴리스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으며, 미국에서 공원이 제일 잘 정비되어 있는 녹색 도시로 유명하여 꼭 한번 가보고 싶던 도시였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니 미국 중부의 최대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소박한(?) 규모의 공항에 다소 실망하였지만, 다른 대규모 국제 공항에 비

해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한 것이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다. 컨벤션센터는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호텔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다운타운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안전해서, 도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는 것이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좋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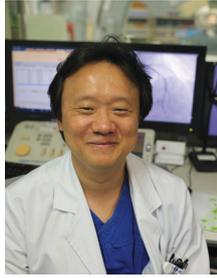
이번 ASE에는 약 52개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심초음파와 심장영상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재들이 발표되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학회의 규모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참석자는 다소 감소한 것처럼 보였으나, 참석자들의 열정은 그 어느 해 보다 활기차고 높은 것으로 느껴졌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심초음파에 관한 기초부터 복잡한 질환들의 혈액학적 상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방법까지 다루어져,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심초음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Case 발표들이 선보였으며, 삼차원 심초음파, 조영 초음파, 부하 심초음파, Strain 분석 등을 통하여 심초음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삼차원 심초음파는 과거 심장판막 질환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것에 비해 심혈관 질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심초음파 영상이 불충분할 때 주로 사용되던 조영 초음파 역시 심근의 관류 상태 평가에 이용될 뿐 아니라, 분자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혈관 내 혈전 용해나 Drug Delivery와 같은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Interventional Session을 Main Auditorium에 배치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늘어나는 TAVI, Mitral Clip 등의 Structural Heart Disease의 중재시술적 치료에 있어서 심초음파의 역할에 대해 깊이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Cardiologist나 Imaging Specialist들 뿐만 아니라 Sonographer, Fellow 또는 일반 의사들을 위한 Session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Healthcare Environment에서 심초음파의 역할" 등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Session 등도 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학회의 방향이 너무 강의와 교육 중심이어서 다양한 심혈관 영상분야에서 임상, 기초 연구 발표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게 보인 것이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심초음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ASE에서도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연재와 포스터 발표들이 있었다. 발표 연재 수와 질로 보아 예년과 비슷하게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으나, 최근 중국과 남미 국가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선진국들과 격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보였다. 이번 학회에서는 현재 세계 심초음파 분야를 이끌고 있는 ASE가 세계 각국의 심초음파학회 Leadership들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표로 인하의대 권준 이사장님이 참가하셨다. 이 Leadership Meeting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심초음파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과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나라별로 수준차이가 너무도 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세계 심초음파 학계에서 이제 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심초음파학회의 위상에 부듯해 하면서도 앞으로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해서 이런 위치에 맞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ASE가 개최된 곳이 미국 중부의 도시라 저녁 시간에 다른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고, 다운타운 내에서 주로 참가한 한국 선생님들이나 후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미네아폴리스가 스테이크와 다양한 Local Beer로 유명해서 특히 맥주를 사랑(?)하는 나로서는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학회 마지막날 저녁에 있었던 "Korean Night"는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전통적인 행사로서,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학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한국 선생님들이 모두 한 식당에 모여 평소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회 참석의 목적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연구에 대한 영감을 얻는 동시에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과 교류를 하는데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번 학회는 그 외에도 청명하고 맑은 하늘, 날씨, 아름다운 도시, 맛있는 음식으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재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TCT AP 2013 성황리에 개최



유철웅 (고려의대)

2013년 4월 23(화)~26(금), 서울 강남의 COEX Convention Center에서 TCTAP 2013이 약 3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중 약 36%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내한하여 열린 토론과 강의를 하였다. 약 221개의 초록과 196개의 증례가 Competition Session

에서 발표되었다. Coronary, Endovascular Intervention, CTO, TAVI, Renal Denervation, LAA Closure, ASD Closure와 관련된 Challenging Live Case들이 프랑스 톨르즈의 Clinique Pasteur, 미국의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오스트레일리아의 Monash Heart, Monash Medical Centre Victoria,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연되었고 청중들의 열띤 토론을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Scientific Program, Competition Session과 Satellite Symposia로 구성되었다. Scientific Program에서는 거의 모든 중재시술과 관련된 분야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4월 23일 화요일에는 일본 CCT와 함께 CTO Live 및 Expert Lecture에서 CTO의 Histopathologic Insight, Antegrade Approach의 최신 지견, Retrograde Approach의 다양한 Issue들에 대해 다뤄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Fellowship Course에서 Left Main과 Bifurcation PCI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Partnership Session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4월 24일 수요일에는 다양한 Issue들이 다루어졌는데 고위험군에서 TAVR이 우선인지 여전히 수술이 선호되는 방법인지에 대한 Lecture가 있었고 다혈관 질환에서 PCI versus CABG에 대한 Issue를 다루어서 많은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유용성 대비 Cost-Effectiveness에 대한 흥미있는 논쟁이 있었다. Bioabsorbable DES가 미래의 Gold Standard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Imaging & Physiologic Summit에서는 Non-Invasive

Imaging인 CT&MRI가 Plaque Evaluation과 Risk Stratification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Future Outcome에 Imaging vs. Physiologic Marker의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있어서 흥미로웠다. 또한 IVUS와 FFR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흥미있는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날 Endovascular Symposium에서는 SFA Intervention과 Below the Knee Intervention에 대한 Live Cases 및 강의가 있었는데 특히 DEB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하였다. 또한 새로운 CTO Recanalization Technique이 소개되고 시연되어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세번째 날인 4월 25일에는 Late Breaking Clinical Trials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Platinum Chromium vs. Cobalt Chromium Everolimus Eluting Stent에 대한 비교,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내원한 노인 환자들의 치료 현황, 당뇨 환자에서 SES vs. ZES, Integrated Use of IVUS and FFR for PCI의 결과 등 순환기 의사들의 갈증을 채워줄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많은 Live Case들이 시연되었고 앞에서 열거한 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강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응급실에서 급성 흉통 환자의 Management에서 hs-troponin assay vs. coronary CTE에 대한 강의, Cardiogenic Shock 환자에서 IABP의 역할, STEMI에서 Thrombus Management에 대한 강의, Adjunct Pharmacotherapy: Beyond the Clot에 대한 강의가 매우 인상이 깊었다. 이날 TAVI Workshop에서 Screening of Candidates, Technical Improvement, Evidences from Database에 대한 교육적인 강의가 있어 많은 청중들의 호응을 받았다. Endovascular Session에서는 Abdominal Aortic Aneurysm과 Carotid Disease에 대한 시연 및 강의가 있었다.

AAA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수술 vs. Endovascular Therapy에 대한 것이었고 Carotid Disease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시술 방법인 Proximal Occlusion Device의 성격에 관한 내용, 무증상 Carotid Artery Stenosis의 치료 적응에 관한 것, CTO Recanalization의 적응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Structural Heart Disease Symposium에서는 Renal Denervation, LAA Occlusion, Transcatheter Treatment for Mitral Regurgitation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시연도 뒤따랐다. 또한 선천성 심장질환의 Device Therapy에 대한 내용도 있어 이분야 전문가들의



호응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4월 26일 금요일에는 간호사를 위한 "Nurse Continuous Education Course"가 마련되어 심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Critical Nursing Care와 Focus on Adjunctive Devices During Intervention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가 마련되어 호평을 받았다. Competition Session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Challenging Cases들과 Abstract들이 발표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우수한 Case와 Abstract를 발표한 연자에게는 많은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TCTAP 2013에서는 각각의 중재시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 받고 계신 많은 해외 연자 분들과 국내 연자들이 같이 시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국내 중재시술 학회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국내 연자들이 세계적인 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큰 즐거움 이었고 더욱 많은 국내 연자들이 Operator로서, 연자로써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Korea Heart Rhythm Symposium 2013 성황리에 개최

2013년 6월 14(금)~15(토)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Korea Heart Rhythm Symposium 2013이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독립적으로 강화된 Debate Session 및 간호사를 위한 특별 세션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부정맥 분야에 서 명성을 인정 받고 계신 Dr. Atul Verma(Canada),

Dr. Chun Hwang(U.S.A), Dr. Jafna Layth Cox(Canada), Dr. Koonlawee Nademanee(U.S.A), Dr. Russell Denman(Australia), Dr. Shien-Fong Lin(U.S.A) 등의 해외 연자 분들과 부정맥 질환에 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부정맥연구회 연구비 수혜증서 전달식과 작년에 이어 젊은 연구자의 연구를 격려하는 젊은 연구자상 경선 및 시상도 있었다.



2013년도 부정맥연구회 연구비 수혜자

이름	소속	연구명
이영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토끼 심장에서 장기적인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심실성 부정맥의 취약성
박형욱	전남대학교병원	남원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 심전도 코호트 연구
박준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방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Cajal cell의 분포가 심방세동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